

앉을 때 통증 사라지면 ‘척추관협착증’ 의심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아프거나 허리를 앉을 때 구부릴 때 통증이 줄어들 경우 ‘척추관협착증’을 의심해야 한다.

척추관협착증은 허리디스크와 더불어 노화로 인한 퇴행성 척추질환 중 하나지만, 대부분 허리가 아프거나 다리 등에 통증이 나타날 경우 허리 디스크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앉을 때 통증이 심해지는 허리디스크와 달리 척추관협착증은 신경이 지나가는 척추관이 좁아져 허리의 통증을 유발,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대·소변 장애와 하반신 마비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광주·전남지역에서 척추관협착증으로 진료받은 인원은 79만 7,582명(광주 20만 927명·전남 59만 7,465명)으로 집계됐다.

엉덩이·다리 저림 등 증상 나타나 허리디스크 유사해 혼동하기 쉬워 폐경 이후 여성 위험군...발병 급증 방치 시 대소변 장애·하반신 마비

연도별로는 ▲2017년 15만 1,092명 ▲2018년 16만 5명 ▲2019년 16만 3,809명 ▲2020년 15만 7,410명 ▲2021년 16만 5,266명으로 5년 사이 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의 경우 전체 환자 중 여성이 10만 4,477명으로 63.2%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남성 환자는(6만 789명) 보다 약 1.7배 더 많았다.

같은 기간 연령대별(전국 기준)로는 70대가 31.4%, 60대 30.8%, 80대 17.5% 등 50대 이상이 93%를 차지했다.

중장년층에서 흔히 발생하는 척추관협착증은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이 좁아져서 신경을 누르는 병이다.

허리 디스크는 젤리와 같은 디스크 물질이 신경을 누르는데, 척추관협착증은 인대, 뼈, 관절 등이 비대해지거나 자라나와 척추관을 좁혀 신경을 누르게 된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나타나는 급격한 호르몬 변화로 인해 척추관협착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고위험군에 속한다.

폐경 이후 발생하는 에스트로겐의 감소는 뼈의 소실과 근육량 감소를 초래하고, 척추관절을 지탱하는 힘이 떨어져 척추관협착증과 같은 척추 질환의 발생을 가속화시키기 때문이다.

척추관협착증은 주로 나이가 들면서 관절과 인대가 비대해지고, 불필요한 뼈가 자라게 되면서 척추관을 누르는 원인으로 발생한다.

또, 추간판(디스크)과 후관절 돌기, 추궁, 황색인대 등 척추관을 구성하는 구조물에서 변성이 오고 두꺼워져 척추관 좁아지면서 척추관협착증이 발생할 수 있다. 여기에 척추가 전방 또는 후방으로 휘어 척수와 신경근을 직접 누르고 혈류장애를 일으켜 증상이 나타난다.

대표적인 3대 증상으로는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타질 것 같이 아프다 ▲걷다가 다리가 아파서 꼭 쉰다 ▲다리가 아플 때 허리를 앞으로 구부리거나 의자에 앉으면 증상이 좋아진다 등이 있다.

이밖에도 다리와 함께 엉덩이와 허리 통증을 호소하기도 하며, 심할 경우 다리 쪽으로 감각이 떨어지거나 힘이 떨어지기도 한다.

척추관협착증의 진단과 치료가 늦어질 경우 척추 신경에 혈액 공급이 감소하거나 완전히 막혀 나중에 치료를 하더라도 신경 회복이 힘들다.

특히 치료하지 않고 계속해서 방치하게 되면 다리가 마비돼 걷기가 힘들어지거나 대·소변 장애, 성기능 장애를 겪게 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형외과 신재원 교수는 “척추관협착증을 예방하기 위해선 평상시의 생활습관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양반다리를 하고 앉거나 쪼그려 일하는 자세는 되도록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이어 “무거운 물건을 들 때는 몸이 가까이 붙어서 무릎을 구부리고 들어 올려야 한다”며 “규칙적인 운동으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척추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의 하나이다”고 덧붙였다. /최환준 기자



화순전남대병원 강세령 핵의학과 교수가 루타테라 치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화순전남대병원 제공

화순전남대병원, 루타테라 치료 지역 최초 도입

신경내분비종양 간 전이 환자 대상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이 지역 최초로 신경내분비종양의 루타테라(성분명 루테튬 옥소도트레오타이드) 치료를 시행했다.

27일 화순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지난 9일 핵의학과에서 췌장 신경내분비종양의 간 전이 환자를 대상으로 첨단 방사성의약품인 루타테라 치료를 시행했다.

루타테라는 위장관 및 췌장 신경내분비종양 치료에 세계 최초로 승인된 펩타이드 수용체 방사성핵종 치료제(PRRT)로서 생존 기간과 삶의 질 개선에 유의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3월 1일부터 ‘절제가 불가능하고 분화가 좋은 소마토스타틴 수용체 양

성의 진행성 및 전이성 위장관 신경내분비종양 성인 환자의 3차 이상, 췌장 신경내분비종양 성인 환자의 4차 이상 치료’에서 보험 급여가 인정되고 있다.

소마토스타틴 유사체 치료에 실패한 경우 화순전남대병원에서 갈륨 도타톡 PET/CT 촬영으로 소마토스타틴 수용체 양성 여부를 포함한 치료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루타테라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핵의학과의 강세령 교수는 “ 그동안 서울 소재의 일부 대형 병원에서만 루타테라 치료를 받을 수 있었으나 화순전남대병원에서도 치료가 가능해지면서 지방에 거주하는 신경내분비종양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 증대와 치료 기회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광주신세계안과, 노안교정렌즈 알티플러스 도입

호남 최초...근·원거리 시력 개선

부작용 위험 낮고 비용 부담 적어

광주신세계안과가 세계적인 안내렌즈 제조 전문 업체(OPHTEC)사에서 개발한 ‘노안교정렌즈 알티플러스’를 호남지역 최초로 도입했다.

27일 광주신세계안과에 따르면 알티플러스 렌즈는 각막과 수정체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근거리, 중간거리, 원거리 시력을 모두 개선할 수 있는 노안교정용 안내삽입렌즈이다.

알티플러스는 백내장을 동반하지 않은 노안 환자들을 위한 시력교정과 노안을 동시에 치료하는 렌즈삽입술이다.

수정체를 제거하지 않고 홍채 전방에 특수하게 제작된 노안교정 렌즈를 삽입해 수정체와 각막을 보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다른 회절형 렌즈와 다르게 굴절형 CTF특히 기술이 적용돼 빛 번짐을 크게 줄였다.

알티플러스의 장점은 수술 후 원래 상태로 복귀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수정체와 각막을 보존할 수 있어 수술 후 경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렌즈만 제거해 수술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

또, 각막 보존으로 안구건조증 등 부작용 위험도 낮고, 양안과 단안 중 선택적으로 수술을 적용해볼 수 있어 비용적인 부담도 적다.

알티플러스 렌즈삽입술은 네덜란드 오펙 사

로부터 선정된 의사만이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알티플러스 렌즈삽입술을 전문으로 하는 안과에서 전방 깊이, 각막 내피 세포 등 정밀검사를 꼭 받고 수술받는 것이 중요하다.

광주신세계안과 김재봉 대표원장은 “백내장은 없지만 노안을 치료하고 싶은 분이나 다초점 백내장 수술 부작용이 걱정되는 분, 단초점 렌즈로 이미 백내장 수술을 받은 분들, 백내장 수술 비용이 부담되는 경우에는 알티플러스 렌즈가 노안을 교정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일반 렌즈삽입술보다 수술이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정밀검사 후 숙련도 높은 의료진과 현재는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 및 상담 받는 것이 우선이다”고 강조했다.

/최환준 기자

AI기반 디지털생체의료산업 고도화 추진

전남대병원 내년까지 115억 투입

개발·인허가·사업화 플랫폼 구축

전남대학교병원 AI헬스케어의료기기 상용화지원센터가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 사업인 병원중심 AI기반 디지털생체의료산업 고도화사업을 시작한다.

27일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광주시가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임상

의와 기업이 연계해 AI헬스케어의료기기 관련 아이디어 발굴부터 제품개발, 인허가,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의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광주지역 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고도화사업은 모두 44개사 66건이 접수돼 평균 2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총 29개사를 선정, 38개 과제에 대한 지원을 결정했다.

이번 사업은 2022~2024년까지 3년간 11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선정된 기업은 ▲(비)임상 유효성/안전성 평가 ▲임상의 기술지도 ▲시제품 제작 및 제품고도화 ▲사업화 아이템 발굴 ▲사업화 촉진활동 ▲임상/인·허가 컨설팅 ▲국내외 인종 ▲전임상/유효성/적합성 평가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조형호 전남대병원 AI헬스케어의료기기 상용화지원센터장은 “의료기기와 헬스케어 제품에서 요구되는 AI기술과 의료인의 아이디어를 반영해 의료인-개발자 간 기술적 협업을 통해 의료인 주도형 AI기반 의료기기 제품개발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환준 기자

아이부터 어른까지... 지역주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병원

족부센터
어깨/팔꿈치센터
척추센터
무릎센터
소아청소년과

수원센터럴병원
SUWAN CENTRAL MEDICAL CENTER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원로6 (신가동 1159)
대표전화 062) 950-97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평가」

최우수1등급 획득

동이병원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238
☎. 062_650_2500

조선대학교병원

광주금연지원센터

보건복지부·국가금연지원센터 지정

아간상담운영(매주 수요일 17:00~20:00)

동구 필문대로 365
전화 222-9030(금연성공)

상무수치과의원
SANGMU SU DENTAL CLINIC

- 명품 임플란트, 보톡스, 턱관절 전문의
- 사랑니 발치 전문의
- 레이저 무통 수술

광주광역시 서구 마북북개로 91
DY빌딩 2층, 상무역 1번 출구
상담전화: 062) 371-4028, 5028

KS+ KS병원
www.kshosp.com

수원 신도심에서 최고의 의료 서비스와 쾌적한 환경으로 Green Hospital을 지향합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원동 왕버들로 220
대표전화 062) 975-9000 응급실 062) 975-9119

건강을 책임지는 병원

정성과 따뜻한 마음으로 진료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